

 2018 

제1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종합)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일시

2018. 2. 23(금), 14~18시

장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간U
-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 1층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아름다운 마을로 되어가는 과정

논산시 마을만들기협의회장 김 시 환

우리 마을은 노인회는 잘 구성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었지만 다른 단체는 미약했다. 그런 미약한 단체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바로 마을공동체 복원이 필요했다. 예전에는 ‘동네 잔치’라는 말이 있었다. 한 가정의 일을 마을이 함께 하곤 했다. 그만큼 서로 협동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은 함께 했다.

그러나 농촌 마을까지도 도시형 생활기반이 마련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살아졌다. 그래서 마을부녀회와 청년회의 활성화가 절실했다.

마을부녀회와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했고 그런 생각을 실천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었다. 그 자치회 구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이루려 했다.

그러므로 마을 이장역할은 중요하다. 이장이 변해야 마을이 살 수 있다. 주변의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마을주민들과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웃공동체(이웃마을)와의 소통 또한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젊은층의 부재로 마을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지속가능하기 위해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되어진다.

첫째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작지만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한다.

셋째 마을의 노령화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이 해결된다면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날 것이다.